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BLACK HOLE OF BROKEN THINGS

가제 : 망가진 아이들의 블랙홀

저자 : Scott Reintgen

출판사: C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분량 : 83,000 words

장르 : YA 소설



세계 초대형 기업이 고용한 열 명의 아이들, 막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시작된 위험한 우주 탐사 '제네시스 11호'에 탑승한 첫 날 아침, 나이가 언뜻 비슷해 보이는 아홉 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주선에 마련된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 앉은 에밋은 맞은편에 자리한 여덟 명의 회사 직원들과 대면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바벨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5년 전에 구글을 인수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 항공우주국을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 알려진 기업. 아이들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진회색 정장을 입고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아이들을 바라본다. 에밋은 이 일이 일종의 '게임'과 같다는 바벨 측의 설명을 듣고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결심했다. 게임이라면 항상 좋아하는데다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떤 게임이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옆에 나란히 앉은 비리비리한 아이들을 보며, 에밋은 우승자는 자신 밖에 없으리란 확신이 들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과 마주한 바벨 사람들 중 한 명이, 에밋이 처음 계약할 당시 설명해주었던 우주선의 탐사 목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다. 열 명의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우주 탐사를 진행할 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일의 성패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진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간의 생사와 운명을 좌우할 탐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진 후,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설명이 따라왔다. 이미 각 아이들의 이름으로 신탁 계좌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 통장에는 평생 동안 매달 1만 달러씩 지급될 것이란다. 이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가족 전체가 의료보험은 물론 각종 건강 관련 상담, 수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양을 비롯해 각종 불치병과 관련하여 개발된 최신 치료법을 죽을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 말에 몇몇 아이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에밋은 문득 궁금해졌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우주선에 오르게 했을까?

### 돈을 위해 냉혹한 권력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처절한 경쟁과 갈등

바벨 커뮤니케이션스가 우주로 날려보낼 우주선에 실험용 원숭이처럼 탑승한 열 명의 아이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에밋은 다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에밋은 이들이 약속한 돈이 필요했고, 무조건 살아 돌아와서 그 돈으로 디트로이트에 사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었다. 에밋의 목표는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다. 마침내 제네시스 11호가 지구를 떠나고, 에밋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홉 명의 아이들 모두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하나 같이 사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 끼지 못한 낙오자들, 어딘가 부족하고 힘든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거대한 회사는 바로 이 약점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서서히 드러난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 회사가 약속한 달콤한 보상은 절대 순수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우주선이 향하는 목적지는 '에덴'이라는 행성. 바벨 측은 이 행성에서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물질,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어떤 귀중한 물질을 채취하여 아무도 모르게 독점하려 한다. 바로 그것이 아이들을 고용한 진짜 이유였다. 에밋을 비롯한 열 명의 아이들은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에덴에 발을 디딜 자격요건을 스스로 취득해야 한다. 우주선 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훈련 과정은 모든 단계가 점수화되어 등수가 매겨지고, 에밋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대가를 치르든 다 이기고 말리라 이를 악문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회사가 캐내려는 이상한 물질의 실체, 에덴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휴머노이드들의 존재, 그리고 아이들을 에덴에 보내려는 바벨의 숨겨진 의도까지. 에밋은 자신이 회사의 설명처럼 인류의 영광이나 처음 목표처럼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진실들을 그냥 씹어 삼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우승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얻을 것인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몰아붙이는 바벨의 잔혹한 요구와 맞서 싸울 것인지.

작가가 3부작으로 계획한 시리즈 소설의 첫 번째 이야기로,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쥘 것인지 인간성을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주인공의 갈등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우주선 속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싸움 속에서 세밀하게 그려진다.

#### <저자 소개>

스콧 라이니겐(Scott Reintgen)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10학년생들에게 영어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 중이다. 수년 동안 공상과학과 판타지 장르의 소설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창작해왔다.

제목 : SECRET KNOCK CLUB series  
가제 : 비밀 노크 클럽 시리즈  
저자 : Louise Bonnett-Rampersaud(글), Adam McHeffey(그림)  
출판사: Two Lions  
발행일: 2012년 12월 18일(1, 2권) / 2015년 2월 24일(3권)  
분량 : 106 페이지(1권) / 112 페이지(2권) / 102 페이지(3권)  
장르 : YA 소설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여덟 살의 왈가닥 소녀 아그네스와 친구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장난, 세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정신 없는 사건들이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세 편의 시리즈로 완성됐다. ‘심사숙고(thinking cap)’할 때면 머리 위에 ‘고양이를 올려 놓는(thinking cat)’ 엉뚱한 아그네스의 유쾌한 모험이 시종일관 미소를 자아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순수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아는 작가가 포착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귀여운 일상이 생생하게 그려진 시리즈다.

### 1권. 어마어마한 도그쇼(The Dyno-Mite Dog Show)

클럽 하우스에 들어오려면 멤버마다 각자 정해진 방법대로 문을 노크해야 입장할 수 있는 비밀 노크 클럽. 아그네스와 친구들이 만든 이 노크 클럽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자는 거창한 목표에 맞게 ‘브룩사이드 은퇴자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한다.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도그쇼’를 개최하기로 하면서부터 어쩌면 엄청난 사건 사고가 터질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늘 지루하게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분명 기뻐할 거란 확신으로 준비한 도그쇼! 게다가 쇼 마지막에는 암컷 개와 수컷 개의 성대한 결혼식을 연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총책임을 맡은 아그네스는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다. 마침내 쇼가 열리는 날, 모두의 예상대로 쇼 중간중간 우당탕탕 소란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교장 선생님의 개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다. 과연 이 엄청난 쇼는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

## 2권. 봄 축제 사건(Spring Un-Fair)

모든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린 학교 봄 축제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진다. 올해 축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물탱크 의자’ 놀이기구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물탱크 의자는 참가자가 물이 가득 담긴 통 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지면 의자가 앞으로 젖혀지면서 물에 풍당 빠지는, 가장 웃기고 재미 있는 축제의 꽃인데 말이다. 던컨 선생님과 조이 교장선생님은 모자란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느라 고민에 빠지고, 늘 기막힌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우리의 아그네스는 이번에도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다. 바로 록밴드를 결성해서 콘서트를 열겠다는 것! 연주는 비밀 노크 클럽 친구들이 담당하고 노래는 아그네스 자신이 맡기로 하면서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될 뻔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알고 보니 아그네스는 노래를 할 줄도 몰랐다. 이 말도 안 되는 밴드가 과연 놀이기구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일 만큼 콘서트 청중을 모을 수 있을까?

## 3권. 자연을 지키자(Going Green)

여섯 명의 비밀 노크 클럽 친구들에게 다시 새 학기가 찾아왔다. 신나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도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바로 ‘유치원 동생들 돌보기’. 아그네스와 같은 학년인 초등학생들 모두에게 앞으로 돌봐주어야 할 유치원생 한 명이 짝으로 지정된다. 한 때 아그네스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다가 걸린 이후 한참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는 헤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꼬마 헤더가 아그네스의 동생으로 지정된다. 동생들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더 해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아그네스는 역시 이번에도 기발한 계획을 떠올린다. 학교 한 귀퉁이에 폐허처럼 방치된 뜰을 깨끗하게 치우고, 어린 동생들과 모여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멋진 계획이었다. 노크 클럽의 목표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만큼, 청소도 하고 자연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클럽 친구들은 빈 우유곽을 무려 1,050개 모아서 독서용 의자도 만들기로 한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새로 단장한 뜰을 공개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과연 아그네스와 클럽 친구들은 무사히 청소를 마치고 재활용 의자까지 만들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루이스 보넷 램퍼서드(Louise Bonnett-Rampersaud)는 영국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Polly Hopper's Pouch (그림: Lina Chesak)』, 『How Do You Sleep? (그림: Kristin Kest)』, 『Bubble & Squeak』 등 여러 편의 아동 도서를 발표했다.

애덤 맥헤피(Adam McHeffey)는 음악가이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SUNY 퍼치스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림책 『Asiago』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했다.